

거듭난 베드로가 전한 완전복음과 전도자의 삶

-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

창세기47:8-10, 베드로전서1:21-23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영생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며,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서 237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이어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인간을 죽이는 불신앙, 사단의 영적인 바이어를 완전히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변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거듭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아담, 신약시대에서 베드로일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완전 복음을 가졌으니 복음을 받을 그릇이 되어라. 복음의 자세를 갖춰라.’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을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본도는 소아시아 북쪽 흑해지방이고, 브리스길라의 남편인 아굴라의 고향이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고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의 토러스산맥 북쪽에 위치하였고 당시 로마에 속한 고을 중 하나였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던 지방으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곳으로 가려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던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즉,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로 활동하던 초창기에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약 30년 후에는 완전히 거듭나서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인 지도자, 서밋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어도 강단메시지를 붙잡으면 내 기준, 수준, 표준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을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라. 강단 말씀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 내 생각대로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 나의 기준, 감정, 경험 다 없애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1. 먼저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초창기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학벌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다. ‘본래 학

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가 대신 대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학벌은 없었지만 세대를 리드하는 영적 서밋이 되었다. 우리도 학벌은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란다.

(2) 갈릴리 호수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어부였다. 내세울 만한 직장도 아니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이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3) 베드로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세상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물 위로 뛰어 들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믿었다가 과도만 치면 바로 의심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전후 사정과 의미도 모르고 자신의 의견을 마치 옳은 것처럼 강하게 표현하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성품이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도 이러한 성품을 배경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다. 내용도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아이같이 철없는 성품이었고 거짓말도 잘하는 비겁하며, 겁쟁이였고, 나중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말로 큰소리치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소리친다. 그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은 잊어버리고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전도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한지 약 30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권면해 주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전도자의 삶 62가지이다.

(1) 국가의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라의 법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였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2)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다.

① 목사와 교역자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2절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전서 5장 3절이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② 젊은 성도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3)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가정생활, 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 다음은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이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이름다우나' 완전복음이 체질화되기를 바란다.

(5)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다. '오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6)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복음 안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된 것들까지도 기도해 주고 오허려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

(7) 거룩한 삶을 권하고 있다. 불신자시대 때 행했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불신자 때 행하던 행위들을 버리라고 권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랬던 것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점점 거듭나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준비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이다.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서밋타임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

3. 세 번째로, 언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던 복음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것이 완전복음, 오직복음이다.

(1)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

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란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부활사건을 통하여 베드로 자신과 초대교회성도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2) 베드로는 복음의 결론이 영혼구원이라는 절대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복음의 절대목표가 나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 방법이 300명집에 도전하는 것이다.

(3)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이 거듭나서 100년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란다.

(4)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되려는 말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는 핵심복음요절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6)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도 우리들의 신분과 권세를 알려주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CM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과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2. Vision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인다운 당연한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거듭난 베드로의 심정으로 24시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응답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는데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다.

4. Image이다. 만일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조금만 집중하더라도 미래가 생생하게 앞당겨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베드로처럼 변화되어 인생을 전도자의 작품으로 남겨야 하겠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말씀으로 나 자신과 현장을 거듭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에, 특히 주님의 몸 된 이 교회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